

반다이산 지질공원: 머리말

반다이산 지질공원은 반다이아사히 국립공원 일부와 이나와시로 호수 주변을 포함하는 곳에 있으며, 지질학,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발 1,816m의 성층 화산인 반다이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의 형태는 806년과 1888년에 두 번의 대분화가 일어나면서 바뀌었습니다. 특히 1888년의 분화는 주변 경관을 극적으로 바꾸었고, 현지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지질공원은 교육, 보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내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타시오바라무라, 반다이마치, 이나와시로마치와 같은 현지 지역사회는 지질공원 관련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다이산 지질공원은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일본 지질공원 네트워크(JGN)에 속해 있습니다. JGN은 2015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이념과 인증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질공원 내에는 200개 이상의 자연이나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있으며, 지질공원 관리자와 그 외 직원들이 반다이아사히 국립공원과 협력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젊은 세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산과 습지, 호수와 늪을 통하여 지역의 지질학적, 문화적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